

공 트
초 대

김 지 연
소설가

- 1963년 초에서 태어나서
서라벌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64년 여상 지의
언어·문학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비평가 대담문학상에 당선됐다.
장편소설로는 「산불군」 「산사람」
「정녀」 「자아의 성」 「초대」,
「사물」 「초남자」 등이 있으며
중편집 「물안여초」, 단편집
「산과사내」 「산성」, 장문집
「산과사내」 「산성」 등이 있다.

먹 물을 뿌려놓은 듯한 캄캄한 공간이었다. 사방(四方)·천지(天地)가 온통 철혹속이어서 이러한 죽음같은 세상이 얼마만큼 넓게 깊게 뻗쳐져 있는지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상구(尙求)는 언제부터인가 한 개의 희끄무레한 점(點)처럼 허우적하고 서 있었다. 자신이 비출대며 버티선 위치가 무한(無限)의 우주(宇宙) 속이라는 것만 인지했을뿐 더 알고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심장을 뛰는 어린 핏덩이의 자지러지는 괴성을 귀를 벌려 흡입하며 두 팔을 허공으로 내저었다.

흡사 지옥을 울리는것 같은 음울한 그 소리는 상구가 발뒤축을 들고 귀를 기울일수록 스러져가고 그가 신경을 놓고 귀를 닫듯하면 느닷없는 합성으로 가슴을 때려왔다.

아가야... 제발...

그는 입술을 움짚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되어 입밖으로 뱉어지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울려드는 소리의 방향을 알 수 없어 캄캄한 사위속을 더듬어볼뿐 그는 우두망찰 허둥대고 서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선 마주편의 무한한 공간(空間)에서 뽀뽀 부유(浮遊)하는 어떤 물체를 보았다.

그것은 원형의 덩어리같은 형태로 불그레한 빛깔을 품고 있었으며 바람 한 점 없이 사방은 고요한데 물체는 풍랑맞은 듯배처럼 아래 위로 몹시 흔들렸다.

누군가 캄캄한 우주속에 붉은 종이언을 띄운것 같았다. 철혹의 어둠이 줄을 삼킨듯 그것은 동동 멋대로 부유하고 있었다.

우우우우... 우우우...

형체를 잡을수 없는 울부짖음 같은 음향은 계속 이어졌다. 그 원형(圓形)은 바로 불그스레한 물체에서 빛어지는 듯도 싶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같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체가 그의 시선속에 집혀지면서부터 소리는 사뭇 난말마적인 비명으로 더욱 선명해지고 그는 귀를 틀어막고 싶을 정도였다.

물체는 큰 머리와 꼬리가 달린 울챙이같은 동물같기도 하고 사지(四肢)를 꼬무락대는 투명한 살갱의 태아(胎兒) 같기도 했다.

우... 우...

살갱을 후벼 삼장을 잡아뜯는 소리는 끝내 귀를 막고선



그의 정신에 태질을 하듯 난타되어 쏟아졌다.

「오, 아가야 — 제발 —」

그는 머리를 두팔로 싸안고 소리를 질렀다. 가슴을 활처럼 웅크리고 괴로워 했다.

그는 베통대듯 부유하는 물체가 괴를 토하듯 울부짖는 음향의 주인공이 바로 민희(敏姬)가 허벅지를 벌리고 찍어 뜯어내버린 자기의 유일한 혈전(血肉)인 그 「생명」이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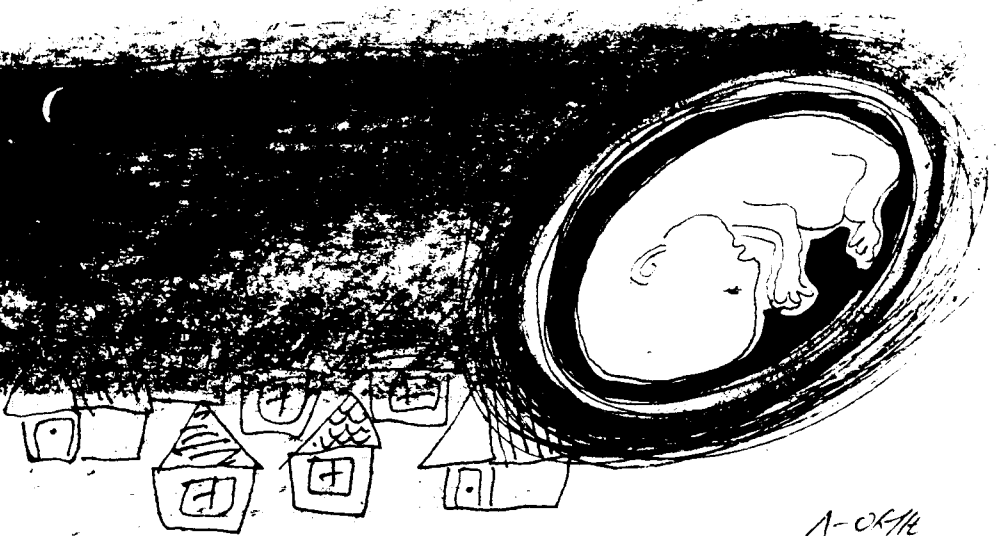
억울하게 무참히 죽어져 승천(昇天)도 못하고 구만리 장천을 원귀(冤鬼)가 되어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살을 찢는 아픔을 원성으로 발사하듯 토해내며 그와 민희를 그리고 세상사람 모두를 저주(詛呪)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오... 오... 내... 아가야...」

그는 몸통을 향나무처럼 비틀다가 옹그려붙이기도 하다가 사사나무처럼 부들부들 떨었다. 입귀에 거품을 물고 심한 경련발작을 일으켰다. 억만금보다 소중한 생명(生命)의 죽임에대한 분노와 아픔과 억울함이 뒤엉켜 범벅을 치는 가슴과 머리를 웅켜쥐고, 동그랗게 동그랗게 끊임없이 옹그라들며 떨었다.

태아의 울음소리



그러다가 그는 눈을 떴다.

자방은 한밤중인듯 적요한데 그의 눈길은 곧바로 달은 창(窓)에는 미명(未明)이 뜨고 있었다.

그는 꿈속과 현실의 갈림 순간에서 잠시 혼란을 겪었다. 꿈속에서처럼 그의 양다리의 부푼이 코밑에 닿을 듯 옹그라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광풍 진음소리를 내며 두다리를 쭉 뻗었다. 김신에 뽕물 같은 작은 땀이 비어져나와 끈적했다. 입안에서는 단내가 났다.

그러나 당장의 그에게는 그러한 육신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다.

장악을 짐치 못한 것은, 민희에게서 3개월된 그의 아기를 지원대는 실로 어찌구무 없는 소식을 들은 닷새 전 밤에도 이난과 유사한 꿈을 꾸었고, 그저께 낮의 10여분의 휴식속에서도 비몽사몽간에 이난 밤과 꼭 같은 꿈을 꾸었음을 그는 오소소한 진율을 느끼면서 기억해낸다.

그는 분명히 조금 전의 꿈속에서도 며칠전 밤에 이런 꿈을 꾸었다는 생각을 스치듯 했었고, 그래서 철혹의 이불속에 나타난 물체며 그 웅웅한 소리며 전혀 낯설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이러한 동일한 내용의 연속적인 꿈에 범상치않은 경외감(敬畏感)을 가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산화된 그의 분신(分身)이 억울한 영혼으로써 그에게 전달하는 어떤 계시(啓示)라고도 생각했다.

그는 엉거주춤 일어나 방안의 스위치를 올렸다.

천장에 닿을듯 벽면가득 방바닥에서부터 쌓여서 올라간 책들이 금방 허물어질듯 그러나 장승들처럼 용케 버티고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 풀어둔 시계를 보았다. 정확하게 0시30분이었다. 그렇다면 창에서런 휘부연 빛은 미명이 아니라 달빛이었을 것이었다.

그는 방문을 열고 쪽마루끝에 놓여진 작은 찬장 위에서 물주전자를 내려 목지를 입속에 털어넣고 마시기 시작했다.

상기도 꿈속인듯 소금에 젖러진 무우쪽처럼 아픔으로 농축되어 비틀러진 내장(內臟)들이 냉수로 조금씩 재자라를 찾는듯 속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주전자를 다시 찬장위에 놓으려다가 경미한 현기증을 느낀다.

그는 오른 손으로 잠시 머리를 받치듯하다가 요 며칠사이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했음을 깨달으며 다시 물주전자를

**미처 완전한 인간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어린 생명의 덩어리가
비정한 사람들의 의료기구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오장육부를 뒤틀리게 했다.**

방으로 집어들어 책상 어귀에 뒹굴러진 식빵 봉투를 잡아당긴다.

그는 빵조각을 뜯었다. 비쩍 마른 식빵조각은 부르튼 입속에서 종이조각처럼 거칠고 깔끄러웠다.

그는 간신히 한조각을 씹곤 다시 침구위로 벌렁 드러누워버린다.

(상구씨의 상황이... 이럴 수 밖에 없잖아요?)

민희는 그와의 사이에 잉태된 3개월의 태아를 그녀 일반적으로 인공유산(人工流産)시킨것은 한마디로 상구 자기 때문이라고 되받았었다.

부모가 승락한 약혼식 정도로 올린 입장이 아닌 서로의 처지에서 양갓집 규수가 아기를 뱃다는 사실은 가문을 더럽히고 치명적인 자폭(自爆)행위나 다름 없다고 당당하게 말 했었다.

또한 그녀는 상구의 강사(講師) 월급이 혼자만의 치닥끼리에도 모자라 굶듯 자취생활을 하는 급급한 처지에 동거생활로 들어간다쳐도 당장 아기와 자기는 무엇으로 먹여살릴 거냐고 뺨을 붉히며 상구의 아픈 곳을 건드리기도 했었다. 학원의 밤시간을 얻고 번역물을 맡으면 어떻게 될거라는 그 막연한 계획을 믿을 수 없으며, 당장 한사람 더 누울수도 없는 손바닥만한 이 골방에서 아기를 낳아 어찌 할 것이냐고 그의 아린 현실을 계속 푹푹 찢러가며 항변했었다.

하여간에 수술을 하기전에 의논은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그의 울부짖음에 수술비도 마련못해줄 뻔한 처지에 무조건 결사반대만 할것임을 눈에 보듯한데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했다.

그가 방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그녀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회의하자 그녀는 차분한 어조를 만들어 「사랑은 식지 않았지만... 비참한 가난은 심히 불편해요.」라고 했었다.

그녀는 연신 방바닥을 치며 껴이끼이 흐뭇여우는 그를 입귀에 싸늘한 미소를 머금고 내려다보며 천천히 일어섰었다.

그리고 방문을 밀고 쪽마루로 나갔었다. 그녀는 방문을 닫기 전에 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극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었다.

「고아로 외롭게 자라 유난히 자신의 핏줄을 원하는 상구씨의 심정은 이해한다. 그러나...나로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그녀는 돌아갔다.

닷새 전의 일이었다.

상구는 고개를 내저으며 천천히 일어나 방안의 불을 끈다.

거듭 여러 날을 꼬집어 생각했어도 「그럴수는 없었다...」 결론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뱃속에서 끼득끼득 차오르는 한숨을 구토하듯



뿔어내며 머리를 흔들었다.

오장육부가 서서히 또다시 죄어들기 시작했다. 자신의 소중한 분신이, 미처 완전한 인간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어린 생명의 덩어리가 비정한 사람들의 도끼(의료기구)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사랑에의 배신감과 함께 그의 전신을 쉬임없이 비틀어 오그라들게 했고 감은 눈속으로 뜨거운 물기를 모두게 했다.

꿈속이 아닌 현실에서 그는 여전히 심장을 잡아뜯기는 듯한 아픔을 당하고 있었다.

깜깜한 우주공간에서 둥둥 부유하던 그 불그레한 물체가 바로 끝없는 장천을 배회하는 자신의 몸조각 아기의 원귀이며, 지축을 흔들듯한 음울한 그 소리는 아기의 울음이며 원성이라는 생각은 꿈속에서나 현실에서나 변함이 없었다.

그는 보호자로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유일했던 자신의 혈점을 유린당함의 뜨거운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다. 눈을 감아도 띠도 잠을 들어도 깨어 있어도 그녀는 뜬겨진 생명의 환영(幻影)으로 온 몸을 즐겼다. 장에 달구어지듯 오장육부며 살이며 피며 뼈가 바지직 바지직 으스러지고 줄어져 몸통을 고동처럼 오그려 붙이다가 지렁이처럼 늘이다가 또 비틀었다.

다음 날.

그가 전화를 걸지않고 민희네 집으로 바로 찾아간 것은 그녀가 그의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이었다.

철대문의 벨을 눌렀을때 낮은 음성의 가정부가



**그는 잃어버린 태아로 하여
커다랗게 뚫려버린 자기 가슴의
공동(空洞)을 그녀의 따스한
사랑에 의해서 애무를 당하고
싶었다.**

인티폰을 통해 누구냐고 물어왔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뱉을때 한동안 머뭇대던 가정부는 「언니는 외출중」이라고 했다. 물론 문도 열지 않았다.

그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분명히 그녀가 집안에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집에까지 방문한 그를 그녀가 피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는 뭔가 그녀 주변에 진작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실제 조금씩 확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그는 의식적으로 그것만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녀가 일언반구의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살점을 없애버린 서늘한 그 행위에서 그에 대한 변화의 결정적 표현임을 깊이 헤아릴 수 있었지만, 그는 햇살이 밝아지자 그녀가 펼치는 그러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믿으려고 했다. 그들은 1년간 끊는 사랑을 했었고 특히 그녀의 그에 대한 애정은 헌신적이었다시피 강렬했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당장의 그는 잃어버린 태아(胎兒)로 하여 커다랗게 뚫려버린 자기 가슴의 공동(空洞)을 그녀의 따스한 사랑에 의해서 애무를 당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의 연민에 찬 다정한 웃음 한자락만 보아도 그것은 조금씩 메꾸어질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철대문을 지탱시키고 선 대리석 기둥에 부착된 인터폰 앞에서 멀거니 서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벨을 눌렀다.

조금전 가정부의 음성이 다시 인터폰을 뒀다. 그녀는 메모를 맡겨놓고 갈테니 나와서 받아가라고 했다.

가정부는 차마 그것을 편지함에 넣어두라는 말은 하지 못했다. 여전히 철문의 보턴은 눌러지지 않은채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했다.

그는 남빛처럼 하얗게 굳어진 얼굴로 수첩 한 장을 찢었다.

여러 말 생략했다.

〈내 아기를 죽인 의사와 당신을 고발하겠요〉라고 적었다.

그때 가정부가 긴 정원을 지나 대문까지 달려나와 쪽문을 빠끔히 열고 내다보았다.

「아. 안녕하세요!」

가정부가 얼굴을 붉히고 민망해 했다.

언니가 외출중이어서 어찌지요? 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저 미안한듯 부끄러워만 했다.

「이거, 언니에게 전해주시요」

그는 가정부의 얼굴을 주시하며 쪽지를 내밀고 돌아섰다. 한적한 주택가 길을 성큼성큼 걸었다.

유월의 따가운 햇살이 그의 정수리를 찌를듯 쏟아져내렸다. 늦게된 선홍색 줄장미들이 높은 담장에서 길 아래로 치렁치렁 늘어져 향기를 뿜고 있었다.

그는 그 냄새를 맡지 못하고 걸었다.

형체를 읽을수 없는 어떤 거대한 함정속으로 가이없이 빠져내리는, 등신같은 자신을 방관한채로 의식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가야...〉

